

淸華簡〈鄭武夫人規孺子〉주해*

李妍周**,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淸華簡〈鄭武夫人規孺子〉의 개요와 출토의미
3. 淸華簡〈鄭武夫人規孺子〉역주
4. 맺음말

1. 머리말

〈鄭武夫人規孺子〉는 2016년 발표된 淸華大學藏戰國竹簡¹⁾ 第六輯 整理報告²⁾에 포함된 5편의 전국시기 문헌 중 하나로³⁾ 周代 제후국의 하나인 鄭나라

* 본 논문은 2015년도 강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음.

**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教授

- 1) 淸華簡(淸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淸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다수의 귀중한 先秦시기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6차에 걸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2) 이들은 모두 춘추시기 역사와 관련된 것들로 모두 전에 보지 못했던 佚籍들로 알려지고 있다. 鄭, 齊, 秦, 楚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죽간에는 모두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제목은 정리하면서 임의로 정한 것들이다. 이 5종 가운데 3종은 鄭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鄭武夫人規孺子〉, 〈鄭文公問太伯〉, 〈子產〉 등이다. 다른 1종은 제나라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管仲〉이며, 나머지 1종은 秦과 楚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子儀〉이다. 〈子產〉은 子産이 지은 刑書의 함의와 구조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한편 淸華大學藏戰國竹簡 第三輯 整理報告의 〈良臣〉이라는 문헌도 특별히 鄭나라의 良臣을 드러내어 소개하고 있는 등 淸華簡의 많은 篇과 內容이 鄭나라와 연관이 있어 이 문헌들이 鄭나라로부터 楚로 유입되었음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의 제2대 군주 武公의 사망 후 그의 미망인 武夫人(武姜)이 왕위 계승자인 莊公에게 한 規戒와 이로써 비롯된 조정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⁴⁾ 역사기록에 따르면 鄭나라는 기원전 806년, 周 厲王의 아들이자 宣王의 동생인 桓公 友가 서주의畿內에 있는 鄭(현재의 섬서성 화현 서북쪽) 땅에 봉해짐으로써 세워진 제후국이며, 서주 말기와 춘추 시대 초기에 주 왕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분봉을 받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주 왕실과 혈연관계가 멀어진 다른 동성 제후국과 달리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으며, 桓公이 周 幽王의 司徒로 봉직했고 桓公을 이은 武公과 莊公도 周 平王과 桓王의 卿士로 봉직했다. 또 서주의 멸망 시 桓公은 幽王과 함께 살해되었으며, 平王의 東遷시에는 武공이 晉, 秦, 衛 등의 제후와 함께 이를 수행했다. <鄭武夫人規孺子>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본 문헌이 《史記·鄭世家》의 관련 기록 및 《左傳·鄭伯克段于鄆》기록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기존 역사서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 鄭 武공이 즉위 후 亂의 시기에 3년간 衛나라에 머물렀음이 언급되어 있는 점과 이야기가 武公의 喪을 배경으로 해 전개되고 있어 선진시기 喪禮의 실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鄭武夫人規孺子>의 개요와 출토 의미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주해하고자 한다.

3) <鄭武夫人規孺子>의 簡은 簡長이 약 45mm로 모두 18支이다. 원래 모두 19支로 추정하고 文句와 簡背의 흔적으로 볼 때 第15簡이 결손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부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로 《史記·鄭世家》에 기록된 武夫人(武姜)과 왕위 즉위 이전의 莊公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무공 10년, 申侯의 딸을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으니 그녀가 武姜이다. 무강이 태자 寤生을 낳을 때 난산이어서 낳고 나서 오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후 무강은 叔段을 낳았다. 숙단을 낳을 때에는 순산이었기 때문에 낳은 후에 그를 좋아했다. 무공 27년, 무공이 병이 들자 부인은 무공에게 숙단을 태자로 세우자고 요구했으나 무공은 듣지 않았다. 이 해에 무공이 세상을 떠나자 오생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莊公이다.”

2. 〈鄭武夫人規孺子〉의 개요와 출토 의미

〈鄭武夫人規孺子〉는 鄭나라의 제2대 군주 鄭武公의 사망 후 왕위 계승자인 莊公의 집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궁중내부의 암투에 관한 이야기로 鄭武夫인과 莊公, 대신들이 등장한다. 내용을 개괄하면, 시작부분에 “鄭武公卒, 既葬, 武夫人規孺子, 曰: ……”라고 해 기술한 사실의 구체적 시기와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鄭武夫人規孺子〉는 鄭武公의 서거 후 喪이 막 시작된 궁궐에서 武公의 미망인인 武夫人이 왕위를 계승한 어린 장공(‘孺子’라고 칭해지고 있다. 《史記·十二諸侯年表》를 참고하면 당시 13세)에게 권고(規戒)하는데 요지는 선군인 武公의 선례에 따라 대신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3년간 정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史記·鄭世家》의 기록을 참고할 때 장공의 집정을 원치 않는 武夫人이 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에 장공은 大夫와 百官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정사에 나서지 않는다. 한편 이듬해 武公의 小祥을 마치자 대신들이 장공에게 정사에 임할 것을 요청하나 장공은 喪을 마칠 때까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鄭武夫人規孺子〉의 이러한 내용은 앞 주4에서 언급한 《史記·鄭世家》의 기록과 연관된다고 하겠으며, 동시에 《史記·鄭世家》의 이어지는 기록과 《左傳·隱公元年》에 ‘鄭伯克段于鄆’과 관련해 상세히 묘사된 장공의 즉위 이후 어머니 武夫人의 음모 하에 왕권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장공과 아우 段)간 권력다툼의 서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鄭武夫人規孺子〉의 출토와 清華簡 第六輯 整理報告 시 이의 연구 발표는 그 자체로도 흥미진진하여 세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鄭武夫人規孺子〉가 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스토리에 더하여 이야기 중에 기존 역사서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 정 무공이 즉위 후 亂의 시기에 3년간 위나라에 머물렀음이 언급되어 있는 점과 본 죽간의 이야기가 정 무공의 喪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선진시기 喪禮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해 살펴보면, 본 죽간의 앞부분에서 武夫人이 孺子(장공)에게 하는 規戒 가운데 “吾君陷於大難之中，處於衛三年，不見其邦，亦不見其室。如母有良臣，三年無君，邦家亂已”라고 해 정 무공이 즉위 후 대란에 처해 3년간 위나라에 머물렀으며 정사를 대신들에게 맡겼다고 하고 있다. 이 무렵 주의 역사에 대한 사학계의 연구를 보면⁵⁾, 주 왕실의 동천과 관련한 역사, 즉 서주의 멸망에 뒤이은 동천의 과정과 연대에 대해서는 《史記》, 《竹書紀年》, 《左傳》 등 전래문헌의 기록들이 소략하고 이들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 학계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 내용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본 내용이 그동안 기존 역사서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로, 李學勤(2016), 王紅亮(2016) 등에 따르면 주의 동천을 전후한 시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⁶⁾ 당시 鄭의 상황을 보면, 서주 멸망 시 정 환공은 유왕과 함께 살해되었으며 무공은 평왕의 동천시 째, 秦, 衛 등의 제후와 함께 이를 수행함으로써 주 유왕과 평왕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평왕의 외가로 평왕이 유왕에 의해 태자에서 폐위되어 도피했고 이후 申侯가 緡, 西夷, 犬戎과 함께 주나라를 쳐 서주의 멸망을 이끈 申, 평왕의 동천을 함께 수행한 秦, 衛 등의 여러 제후국과 복잡하게 관계가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화간 연구를 주도한 인물의 한 사람인 李學勤(2016)의 주장처럼 상기 대란은 주 왕실을 둘러싼 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⁷⁾, 이 경우 정 무공이 이 시기에 3년간 衛나라

5)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한 연구로는 심재훈(2014)이 있다. 심재훈은 청화간<계년> 출간 이후 중국고대사학계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주 왕실 동천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의 대비를 통해 검토하고 각각의 문제점과 절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6) 李學勤(2016)의 주장에 따르면 청화간 <계년>에 언급된 “周亡王九年” 간문과 서로 연계된다. (“周亡王九年，邦君諸侯焉始不朝於周，晉文侯乃逆平王於少鄂，立之於京師。三年，乃東徙，止於成周。晉人焉始啓於京師，鄭武公亦正東方之諸侯。”) 다만, “周亡王九年”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고문헌학과 사학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없고 유왕 사후 9년(李學勤, 2016), 휴왕 사후 9년(심재훈, 2014), 유왕 9년(王紅亮, 2016) 등 여러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李學勤(2016)은 이를 서주 왕조가 패망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당시 모종의 사건의 개연성을 짐작케 하며 향후 주의 동천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황자료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鄭武夫人規孺子〉는 鄭武公의 喪중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고찰해볼 수 있는 용어들이 다수 출현하며 이로써 당시의 상례와 제도의 실재를 보여주고 있다. 《儀禮》, 《禮記》 등 고대 예서에는 喪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예서가 실제 편찬된 시기는 漢代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시기에 작성되어 선진시기 상례의 실재를 보여주며 후대 예서와 비교해볼 수 있는 본 죽간의 내용은 사뭇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鄭武夫人規孺子〉에 보이는 喪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어는 정무공의 죽음을 칭한 ‘卒’과 ‘卽世’, 喪의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가매장인 ‘殮’, ‘殮’ 후에 행해지는 ‘臨’, 居喪의 한 단계인 ‘小祥’, 3년 居喪과 관련된 ‘憂’ 등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제후의 죽음 이후 諡號의 사용과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과 先君에 대한 호칭 사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또한 居喪과 정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래의 예서와 비교해볼 수 있어 관심을 끈다. 먼저 簡文에 “鄭武公卒”, “今吾君卽世”라 해 武公의 죽음을 ‘卒’과 ‘卽世’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중 ‘卒’은 《春秋》에 諸侯의 죽음을 ‘薨’이라고 하거나, 또는 ‘卒’이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禮記·曲禮下》에 “天子의 죽음을 崩이라고 하고, 諸侯의 죽음을 薨이라고 하며, 大夫는 卒이라 하고, 士는 不祿이라 하고, 庶人은 死라고 한다.”고 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李守奎(2016)는 “사망을 칭하는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禮制, 避諱, 사용 장소 등의 원인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며, ‘卒’과 ‘卽世’⁸⁾ 등은 아마 제후의 죽음에 대한 통칭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과거 경학자들이 經을 해석함에 있어 글자에 좋고 나쁨의 평가(褒貶) 의미를 부여해 사건을 말하고는 했는데 본 죽간의 ‘卒’과 ‘卽世’에 이러한 포폄의 의미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禮書가 늦

8) 李守奎(2016)에 따르면, 楚化간〈系年〉의 경우 諸侯의 죽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卽世’라고 칭하고 있다.

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殯’는 관을 가매장할 구덩이(殯하는 곳)로 《儀禮·士喪禮》의 大斂과 殯棺 관련한 절차 부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⁹⁾ 그러나 ‘殯’는 단순히 관을 가매장할 구덩이를 파는 것만이 아닌 구덩이 파기부터 시신을 이에 안치하기(殯棺)까지의 과정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¹⁰⁾ 李守奎(2016)에 따르면 본 죽간에서의 ‘殯’는 이를 말한다. 이어 죽간 내용을 보면 “孺子拜, 乃皆臨”이라고 하여 ‘殯’가 행해진 상태에서 武夫人이 孺子(장공)에게 규계를 마치자 孺子が 武夫人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이어 함께 ‘臨’을 행하는데, 여기서 ‘臨’이 당시 상례의 한 단계인지, 또는 《儀禮》나 《禮記》 등 예서에 기록된 상례 절차 중 특정 단계의 절차에 해당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¹⁾ 한편 죽간에 보이는 ‘小祥’은 사후 1주기에 지내는 상례상의 ‘小祥’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¹²⁾, 본 죽간에서 孺子(장공)가 무공의 소상이 끝난 후 대신들을 대표해 邊父가 정사에 임해 줄 것을 청하는데 대해 답하는 “抑無如吾先君之憂何(先君의 喪을 지키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에서의 ‘憂’는 위고문《尙書·說命上》에 나오는 “王宅憂, 亮陰三祀(왕이 거상

9) 大斂 절차는 “掘殯見柩.(殯을 위하여 殯을 파는데, 그 깊이는 관을 넣었을 때 관의 柩이 보일 정도로 판다.)”고 했으며, 鄭玄 注에 “埋棺之坎也, 屈之於西階上.(‘殯’는 관을 묻을 구덩이이다. 堂의 서쪽 계단 위쪽에 판다.)”(이상아 외 역, p.256)이라고 했다. 殯棺의 절차는 “主人奉尸斂于棺, 踊如初, 乃蓋. 主人降, 拜大夫之後至者, 北面視殯.(주인이 시신을 받들어 殯에 안치한 棺안에 모신 뒤에 동쪽 계단 위에서 대렴할 때처럼 踊을 한정 없이 하고 이어 관 뚜껑을 덮는다. 주인이 서쪽 계단으로 당을 내려와 대렴하고 있을 때 뒤늦게 왔던 대부에게 일일이 절한 뒤 다시 계단을 올라와 서쪽 계단 동쪽에서 북향하고 殯를 살핀다.)”(同書p.265)라고 했다.

10) 孔穎達의 “肆訓爲陳, 謂陳屍于坎”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1) 아래 [간문3] [주석] [1] 참고. 李守奎(2016)는 본 죽간에서의 ‘臨’과 《儀禮·士虞禮》의 “宗人告有司具, 遂請拜賓, 如臨. 入門, 哭, 婦人哭.(宗인이 주인에게 고하기를 ‘有司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 마침내 주인에게 朝夕哭 때처럼 賓이 있는 방향마다 세 번씩 절하라고 청한다. 주인이 賓에게 절을 하고 廟門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 이때 부인들도 곡을 한다)”에서의 ‘臨’(鄭玄 注: 朝夕哭)을 모두 “시신을 구덩이에 안치한 후 시신을 보고 곡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한편, 《儀禮·士喪禮》에 보면 ‘殯’를 포함해 大斂이 모두 끝난 후 成복(成服)과 朝夕哭을 시작하기에 앞서 殯을 향해 哭하는 다음의 절차가 있다. “賓出. 婦人踊. 主人拜送于門外, 入, 及兄弟北面哭殯.(賓이 물러나온다. 이때 부인들이 踊을 한다. 주인이 寢門 밖에서 절하여 전송한 뒤 다시 들어와 형제들과 북향하고 殯을 향하여 곡한다.)”

12) 《儀禮·士虞禮》: “期而小祥(초상으로부터 일주년이 되면 小喪祭를 지낸다)”

하여 3년을 움막에서 지내셨다)나 《禮記·喪服四制》에 “始死三日不怠, 三月不解, 期悲哀, 三年憂, …… (부모가) 처음 죽으면 사흘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달 동안 헤이하지 않고, 만 1년 동안 슬퍼하고, 3년간 시름에 잠기는 것은…”이라고 한데서의 ‘憂’의 의미로 3년간 居喪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본 죽간은 시작부에서 “鄭武公卒, 既殯”라고 하여 무공을 시호로 칭하는 반면, 왕위 계승자인 장공에 대해서는 시호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 본 죽간이 최소한 무공의 장례가 끝난 후 장공이 살아있을 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¹³⁾, 간문 내에 ‘吾先君’, ‘君’, ‘吾君’, ‘孺子’ 등 선군과 왕위계승자를 칭하는 여러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 바¹⁴⁾¹⁵⁾ 만약 본 문헌이 당시 사관의 실록이라고 본다면 실제 호칭을 고찰하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¹⁶⁾ 한편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상이 끝난 후 邊父가 정사에

13) 李守奎(2016). 참고로《周禮·春官下》에 大師의 직무에 관해 기술된 것을 보면, “大師掌大喪 帥瞽而厥作置謚。(大師는 大喪(제후의 喪)에 瞽朦을 거느리고 고인의 생전의 행적을 살펴 謚號를 짓는다)”라고 하고 있으며, 《通典》에 따르면 (葬에 앞선) 啓殯 후에 시호가 주어진다.(啓殯後贈謚.)

14) 武夫人의 경우 무공을 ‘吾先君’, ‘君’, ‘吾君’ 등으로 칭하고 嗣君인 어린 장공을 ‘孺子’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大臣들은 무공을 ‘吾先君’, 장공을 ‘君’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 장공도 무공을 ‘吾先君’이라고 칭하고 있다. 한편 죽간의 기록자는 嗣君인 장공을 ‘孺子’ 및 ‘君’으로 기술하고 있다. 李守奎(2016)에 따르면, 孺子は 나이 어린 嗣君에 대한 호칭이며, 나이 어린 嗣君을 孺子라고 한 것은 유래가 오래되어 周公도 이와 같이 成王을 불렀는데 이는 《尚書》와 楚辭<周公之琴舞>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親세가 嗣君보다 높은 손윗사람이다. 한편 본 죽간에서 武夫人이 嗣君인 장공을 ‘孺子’라고 부르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직 그에게 嗣君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君에 대한 공경심이 없기 때문이다. 李守奎는 또 본 죽간에서 大臣들이 嗣君을 君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상 일 년을 넘겼는지 여부와 반드시 관계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公羊傳》에 “君이 생존해있으면 世子라고 하고, 君이 죽고 나면 子某라고 하며, 장례를 치르고 나면 子라고 하고, 일 년을 넘기면 公이라 한다”고 한 것은 고서의 文例를 정리하여 요약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5) 《尚書·周書·洛誥》: “乃惟孺子, 顛朕不暇, 聽朕教汝于棄民彝。(孺子께서는 스스로 일을 분별하여야 할 것이니 저는 일에 대하여 참견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백성들을 도와주는 법만을 가르쳐드릴 따름입니다.)” <周公之琴舞>: “四啓曰: “孺子王矣, 不寧其有心。(어린 천자 즉위하여 마음속으로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없다네.)”

16) 李守奎(2016)는 본 죽간의 전편에 武公, 武夫人이라는 謚稱만 있고, 왕위계승자는 ‘孺子’ 또는 ‘君’이라고 칭했으며 ‘莊公’이라는 謚號로 불리지 않은 것을 두고 《左傳》에서 “武公은 申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武姜이라고 했으며, 莊公과 共叔 段을 낳았다”고 한 기술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謚稱으로 불 때 이는 아마도 莊公이 살아있을 시기에 史官에 의해 쓰여진 실록일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그렇다면 당시의 실제 호칭을 고찰하는

임할 것을 嗣君에게 청하는 것은 《禮記·喪大記》에 소상 이후의 상례규정과 관련해 “既練, … 君謀國政(소상을 치르게 되면, 제후는 국정을 모의한다)”이라고 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장공이 “抑無如吾先君之憂何(先君의 居喪과 관련해서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은 상례의 三年之喪 예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이 당시에 삼년지상이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상황 하에서의 신중처사의 측면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⁷⁾

3. 淸華簡〈鄭武夫人規孺子〉역주¹⁸⁾

【간문1】

奠(鄭)武公 卒(卒), 既 斃(殯) [1], 武夫人 設(規)

[2]乳(孺子), 曰: “昔 虍(吾)先君, 女(如)邦 將(將) 又

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 17) 삼년지상(三年之喪)의 기원 및 이의 정착과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병석(2013)에 따르면, 이에는 ‘唐堯설’, ‘殷商설’, ‘周公설’, ‘공자 창시설’ 등이 있으나 선진시기 보편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는 춘추 후기에 공자 등 학자의 제창으로 유가의 부분 학파가 실행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시기 맹자 등 학자가 적극적으로 제창하여 서한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국가의 제도로 정립되었다.(pp.65-91) 《禮記·喪服四制》, 《禮記·雜記下》, 《論語·憲問》, 《論語·陽貨》 등에 삼년지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주요 근거로 삼은 것은 《尚書》의 <無逸>과 <說命上>(위고문상서)에 기록된 은나라 高宗이 즉위해 服喪하는 동안 3년간 말을 하지 않았다(高宗諒陰, 三年不言)는 고사이다. 그러나 高宗諒陰은 하나의 정치행위이고 ‘침묵사정(沈默思政)’ 혹은 ‘신중처사(慎重處事)’라고 고증한 연구도 있다.(同書pp.72-73) 따라서 본 죽간에서 장공이 삼년지상을 내세워 정사에 임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선군인 무공의 선례를 들어 무부인이 그에게 3년 동안 국사를 처리하지 않고 조정의 정무를 대부들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신중처사의 측면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 18) 본 역주는 淸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淸華大學藏戰國竹簡(六)》(上海, 中西書局, 2016)과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참고하고 또 자체 연구해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말로 역주하였으며 개요와 출토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주석에서 개별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는 학자명과 발표연도를 명시하였다.

(有) 大事， 朮 (必) 再三進夫 = (大夫) 而與之 虜 (偕) **【1】** 愿 (圖)[3]。既 旻 (得) 愿 (圖)，乃爲之毀[4]。愿 (圖)所馭(賢)者， 女 (焉) 繻 (申)之以龜 簪 (筮)。古 (故) 君與夫 = (大夫) 龜 (宛)[5] 女 (焉)，不相 旻 (得) 罍 (惡)。區 = (區區) 奠 (鄭) 邦， **【2】** 臞 (望) [6] 虜 (吾) 君，亡 (無) 不 盜 (逞) 元 (其) 志 [7]於 虜 (吾) 君之君 己 (己) [8]也。史 (使) 人姚 (眺) [9] 駢 (問) [10]於邦 = (邦， 邦) 亦無大繇 (徭) 賄 (賦) [11]於萬民。 虜 (吾) 君函(陷)[12] **【3】** 於大難之中， 尻(處)於 匱 (衛) 三年， 不見元 (其) 邦， 亦不見元 (其) 室[13]。女(如)母 (母) 又 (有) 良臣， 三年無君， 邦 豕 (家) 亂 (亂) 已[14]。 **【4】** 自 匱 (衛) 與[15]奠 (鄭)， 若卑[16]耳而 啓 (謀)。今是臣 = (臣臣) [17]， 元 (其) 可 [18]不竇[19]？ 虜 (吾) 先君之 崇 (常) 心， 元 (其) 可不述[20]？ 今 虜 (吾) 君既<卽>業 (世) [21]， 乳 = (孺子) **【5】** 女 (如) [22]母 (母) 智 (知) 邦正 (政)， 諛 (屬) [23]之夫 = (大夫)。老婦亦 將 (將) 糾 (糾) 攸 (修) [24]宮中之正 (政)， 門檻之外母 (母) 敢又 (有) 智 (知) 女 (焉)。老婦亦不敢 **【6】** 以 媿 (兄) 弟昏 (婚) 因 (姻) 之言 以 亂 (亂) 夫 = (大夫) 之正 (政)， 乳 = (孺子) 亦母 (母) 以 執 [25] (褻) 豎 (豎)、卑御、勤力、 射 (射) 駢 (駢)、 媿 [26] (媿) 妬[27] (姪) [28]之臣躬 (窮) [29]共 (恭) 元 (其) 廕 (顏色) **【7】** 盪 (掩) [30]於元 (其) 考 (巧) 語， 以 亂 (亂) 夫 = (大夫) 之正 (政)。

鄭武公卒， 既殯， 武夫人規孺子， 曰：“昔吾先君， 如邦將有大事， 必再三進大夫而與之偕圖。既得圖， 乃爲之毀。圖所賢者， 焉申之以龜筮。故君與大夫宛焉， 不相得惡。區區鄭邦， 望吾君， 無不逞其志於吾君之君己也。使人眺問於邦， 邦亦無大徭賦於萬民。吾君陷於大難之中， 處於衛三年， 不見其邦， 亦不見

其室。如母有良臣，三年無君，邦家亂已。自衛與鄭，若卑耳而謀。今是臣臣，其可不寶？吾先君之常心，其可不述？今吾君卽世，孺子如母知邦政，屬之大夫。老婦亦將糾修宮中之政，門檻之外母敢有知焉。老婦亦不敢以兄弟婚姻之言以亂大夫之政。孺子亦毋以褻豎、卑御、勤力、射馭、媿媿之臣窮恭其顏色，掩於其巧語，以亂大夫之政。

【주석1】

[1]整理者(2016): 斃 은 三體石經 '逸'字의 古文이며, 古音이 喻성모 質운부의 글자이다. 여기서는 喻성모 物운부의 '殛'字의 통가이며, 의미는 임시로 가매장하고 잠시 장례를 미루다의 뜻이다. 《逸周書·作雒》에 “武王이……鎬에서 돌아가시고, 岐周에 가매장되었다.(武王……崩鎬, 殛于岐周)”라고 했으며, 《呂氏春秋·先識》에 “威公이 돌아가시고 가매장된 채 9개월이 지나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威公薨, 殛, 九月不得葬)”고 했는데, 모두 간문과 유사하게 쓰인 예이다.¹⁹⁾

[2]整理者(2016): 設 은 李守奎에 따르면 '規'의 통가이다. 바로잡도록 권고하다(規勸)의 뜻이다. 《左傳》昭公十六年에 “그대는 차라리 다른 일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아라(子寧以他事規我)”라고 했다.

[3]整理者(2016): 圖는 계획하다(謀劃)의 뜻이다. 《爾雅·釋詁》에 “圖는 도모하다(謀)의 뜻”이라고 했다.

[4]晁福林(2016): '毀'는 '비판하다'의 뜻이 있는데, '毀譽(명예를 훼손하다)'의 '毀'가 바로 이 뜻이다. 이 문장은 '계책을 얻게 되면 대신들로 하여금 계책에 대해 비판의 의견을 내게 하였다'의 뜻이다.²⁰⁾

[5]整理者(2016)는 ' 斃 '은 上博簡《孔子詩論》에서 '宛'의 통가로 쓰였다고 했으며, 單育辰(網名ee)은 '宛'의 통가로 보는 것이 보다 낫다고 했다.²¹⁾

19) 본고에서 인용한 整理者의 주장은 모두 李學勤主編《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 中西書局, 2016, pp.105-109을 참고했다.

20) 簡帛網, 簡帛論壇·簡帛研讀,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帖28樓(劉孟瞻先生發言) 참조

그러나 《說文》에 “婉은 순하다(順)의 뜻”이라고 했지만, ‘宛도 ‘순하다(順)’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管子·五行》에 “그렇게 하면 天氣가 순조롭게 풀려 초목이 왕성하게 자라게 되고 오곡이 번성하여 옹골차게 되며(天爲粵宛, 草木養長, 五穀蕃實秀大)”라고 했는데, 尹知章 注에 “宛은 순하다(順)의 뜻”이라고 했다.

[6]望은 높은 곳을 바라보다(瞻望), 우리리보다(景仰)의 뜻이다. 《易·繫辭下》에 “군자는 미세한 것도 알고 빛나는 것도 알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강한 것도 알아서 만인이 우리리볼 수 있는 사람이다.(君子知微知彰, 知柔知剛, 萬夫之望)”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그래서 만인이 우리리보는 사람이다(故爲萬夫所瞻望也)”라고 했다. 《漢書·晁錯傳》에 “천하의 사람들이 그 정치를 즐거워하고 그의 덕에 귀의하여 부모처럼 우리리보고 흐르는 물처럼 순종하며 따랐다.(是以天下樂其政, 歸其德, 望之若父母, 從之若流水)”고 했다.

[7]王挺斌(2016)은 ‘濫元志’을 ‘逞其志(그 바라는 바를 이루어 만족해하다)’의 통가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했다.²²⁾ 古書에 ‘逞志’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나오며, 출토문헌에도 자주 등장한다.

[8]君己는 자신의 군주가 되어 자신을 통치하라는 뜻이다.

[9]姚는 ‘眺’의 통가이다. 《國語·齊語》에 “또 피폐(皮幣)의 선물로써 중히 여기고 제후들에게 빈번하게 朝聘하게 하여(而重爲之皮幣, 以驟聘姚於諸侯)”라고 했는데, 韋昭 注에 “眺은 보다(視)의 뜻”이라고 했다.

[10] 駢 은 묻다(問)의 뜻이다. 眺問은 사방을 살피며 물어보라는 뜻이다.

[11]王挺斌(2016): ‘ 繇 賄 (賦)’는 ‘徭賦’의 통가가 아닐까 의심되며, ‘요역(徭役)과 세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韓非子·詭使》에 “조세를 징수하고 백성들의 힘을 집중시켜 국난에 대비하고 창고를 채워야 하


21) <淸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 帖7樓

22) 淸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淸華六整理報告補正》(下簡稱《補正》), 淸華大學出土文獻與保護中心, 2016.04.16

는데, 사병들이 달아나고 숨어서 권문세가들에게 의탁하여 부역과 조세를 면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군주가 노동력을 잃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만 명에 달한다.(習悉租稅，專民力所以備難充倉府也。而士卒之逃事狀匿附託有威之門以避徭賦，而上不得者萬數)”고 했다.²³⁾

[12]整理者(2016): 函은 匣성모 侵운부 글자로, 같은 운부의 ‘陷’의 통가이며, 빠져들다(陷入)의 뜻이다.

[13]整理者(2016): 室은 《逸周書·度邑》에 “하물며 그 집을 돌아볼 수 있었겠는가(矧其有乃室)”라고 했는데, 朱右曾《集訓校釋》에 “室은 집”이라고 했다.

[14]王挺斌(2016): ‘巳’字는 清華簡 第六輯 의 <管仲>, <子産>篇에도 나온다. ‘巳’와 ‘也’는 形과 音이 다르다. ‘巳’字는 아마도 직접 ‘也’로 통가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巳’字는 행위를 이미 멈추다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있다. ‘巳’의 字形은 사실 ‘巳’로부터 분화되었다. ‘巳’字는 古書에서 흔히 문장 말미의 어기 조사로 출현하며, 용법은 때로 ‘也’와 동일하거나, 또는 ‘矣’와 동일하다. ‘巳’와 ‘矣’는 또 異文의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今本《老子》제2장의 “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巳；皆知善之爲善，斯不善巳(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악한 것이고, 선을 선하다고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와 北大 簡本의 “天下皆智美之爲美，亞(惡)巳；皆智善之爲善，斯不善矣(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악한 것이고, 선을 선하다고 알지만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등이 있다. ‘巳’는 ‘’로도 쓸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유사한 용법의 ‘巳’가 ‘矣’의 通假字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巳/已’의 語氣詞 용례가 아주 많아 그 허사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⁴⁾

[15]與는 관리하다(操持), 장악하다(執掌)의 뜻이다. 《方言》卷十二에 “與는 다루다(操)의 뜻”이라고 했다. 郭璞 注에 “관리하다(操持)를 이르는 말”이라

23) 《清華六整理報告補正》참조

24) 《清華六整理報告補正》참조

고 했다.

[16]整理者(2016): 卑는 《穀梁傳》僖公15년 楊士勛 疏에 “가까이하다(近)와 비슷하다”고 했다.

[17]整理者(2016): 是臣은 ‘이런 신하’의 뜻이며, 그 아래의 ‘臣’字는 동사로 해석된다.

[18]單育辰(網名ee)(2016): (整理者처럼) ‘可’를 굳이 ‘何’의 통가로 볼 필요가 없다.²⁵⁾

[19]王寧(2016): ‘寶’는 아끼다(珍惜), 소중히 여기다(診(診은 ‘珍’의 통가)視)의 뜻이다.²⁶⁾

[20]單育辰(網名ee)(2016): ‘述’은 인용하여 해석하다(稱述)의 뜻으로, 여기서는 파생되어 ‘따르다(遵循)’의 의미로 쓰였다.²⁷⁾

[21]整理者(2016): 卽世는 清華簡〈系年〉제2장의 “武公卽世(무공이 죽다)”에서도 보이는데, 整理者 注에 “卽世는 죽다(亡卒)의 뜻”이라고 했다.

[22]劉光(2016)은 ‘孺子女毋知邦政’에서 ‘女’는 ‘如’의 통가라고 주장했으며,²⁸⁾ 單育辰(網名ee)은 ‘如’의 통가로, 沈培의 <由上博簡證“如”可訓爲“不如”>를 참고 시 ‘不如’의 의미로 풀이된다고 했다.²⁹⁾

[23]整理者(2016): 屬은 《左傳》襄公19년에 “仲子是 아들 牙를 낳아 戎子에게 맡겼다.(仲子生牙, 屬諸戎子)”고 했는데, 杜注에 “屬은 맡기다(託之)의 뜻”이라고 했다.

[24]整理者(2016): 糾修는 다스리다(治理)의 뜻이다. 《左傳》昭公6년에 “정치로써 바로잡았으며(糾之以政)”라고 했는데, 孔疏에 “糾는 들어 바로잡음(舉治)을 이른다”고 했다. 《論語·堯曰》에 “폐지된 관직을 다시 고치니(修廢官)”라고 했는데, 皇侃 義疏에 “옛것을 고치는 것을 修라고 한다(治故曰修)”고

25)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 帖7樓

26) 王寧, 《清華簡六〈鄭武夫人規孺子〉寬式文本校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5.01.

27)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 帖14樓

28) 《清華六整理報告補正》참조.

29)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 帖0樓

했다.

[25]石小力(2016): ‘甄’는 楚簡과 古書의 用字 습관으로 볼 때 ‘褻’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³⁰⁾

[26] 媿 은 ‘媿’으로 ‘美’의 古字이다.

[27]媿은 ‘媿’의 통가이다. ‘石’은 禪성모 鐸운부이며, ‘毛’은 端성모 鐸운부이기 때문에 두 글자는 통용될 수 있다.³¹⁾ 《玉篇·女部》에 “媿는 미녀(美女)의 뜻”이다.

[28]褻豎, 卑御, 勤力, 射馭, 媿媿는 모두 莊公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褻豎는 莊公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남자 시중을 가리킨다. 卑御는 시중을 드는 여자 노비를 가리킨다. 勤力은 힘쓰는 일을 하는 노비를 말한다. 射馭는 호위하고 마차를 모는 시위(侍衛)을 말한다. 媿媿은 妃嬪과 같은 시첩(侍妾)을 말한다.

[29]躬은 王仁昫《刊謬補缺切韻·東韻》에 “躬은 삼가 공경하다(謹敬)의 뜻”이라고 했다. 또 “躬으로도 쓴다.”고 했다. ‘躬恭’은 같은 의미를 연용한 어휘이다.

[30]整理者(2016): 𩇛 은 ‘鹽’의 本字이며, 이 글자는 喻성모 談운부로, 影성모 談운부의 ‘掩’의 통가이다. ‘掩’은 《戰國策·趙策二》에 “어찌 여러 사람의 말을 가리고 막겠는가(豈掩於衆人之言)”이라고 했는데, 鮑注에 “덮다(蔽)와 같다.”고 했다.

【번역1】

鄭武公이 죽고 영구를 가매장한 상태에서(殯³²⁾를 끝낸 후), 武夫人이 孺

30) 《清華六整理報告補正》참조

31) 張儒·劉毓慶, 《漢字通用聲素研究》, 山西古籍出版社, 2002, p.425 【石通毛】條

32) ‘殯’는 관을 가매장할 구덩이(殯 하는 곳)로 《儀禮·士喪禮》의 大斂과 殯棺 절차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掘肆見衽, 棺入, 主人不哭, 升棺用軸, 蓋在下。”) 그러나 ‘殯’는 단순히 관을 가매장할 구덩이를 파는 것만이 아닌 구덩이 파기부터 시신을 이에 안치하기(殯棺)까지의 과정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李守奎(2016)에 따르면 본 죽간에서의 ‘殯’은 이를 말한다.

子³³⁾에게 권고하여 이르기를, “예전에 先君(武公)께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몇 번이고 대부들을 만나 의논해 도모하셨다. 또 계책을 얻게 되면 비판 의견을 구했으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점을 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셨다. 그래서 君主와 대부들의 관계가 아주 조화로웠으며, 서로 간에 불쾌한 일이 전혀 없었다. 작은 나라인 우리 鄭나라는 백성들이 모두 우리의 군주를 우러러 따랐으며, 그가 자신의 군주임에 매우 만족해했다. 몰래 사람을 보내 나라 안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으나 萬民이 큰 요역이나 세금 부담이 없었다. 군주께서는 큰 難을 당해 衛나라에 3년 동안 머무르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셨다. 만약 현명하고 어진 신하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군주가 없는 상황에서 나라는 분명히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先君께서는 衛나라에 머무르며 鄭나라를 다스리셨는데 마치 대부들과 귀를 맞대고 함께 도모하듯이 하셨다. 지금 이런 대신들이 너를 섬기는데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先君께서 일관되게 하시던 것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군주께서 돌아가셨으니 孺子 너는 국정에 관여 말고 대부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나이 든 나도 단지 宮中의 일만 다스리고 宮門 밖의 일은 감히 관여하지 않는다. 나이 든 나도 친인척의 말을 들어 대부들의 政事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는데, 孺子 네가 늘 곁에 있는 시종, 노비, 시위(侍衛), 비빈들이 안색을 꾸미고 교묘한 말로 오도하는데 속아 대부들의 정사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간문2】

乳 = (孺子) 女 (如) 共 (恭) 夫 = (大夫), 虞 (且) 以教[1] 女 (焉)。女 (如) 及三 載 (歲), 幸果[2]善之, 乳 = (孺子) 元 (其) 童 (重) [3] 旻 (得) 良 [8] 臣, 史 (使) 哉 (禦) [4]

33) 嗣君인 어린 鄭莊公. 《史記·鄭世家》와 《史記·十二諸侯年表》를 참고하면 이때 장공의 나이는 14세이다. 李守奎(2016)에 따르면 ‘孺子’는 나이 어린 嗣君에 대한 호칭이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권세가 嗣君보다 높은 연장자(長輩)이다. 武夫人은 嗣君의 모친이며 이때 嗣君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孺子’라고 했다.

寇 (寇) 也, 專 (數) [5] 慝 (圖) 於君。昔 虜 (吾) 先君 史 (使) 二三臣, 躬 (抑) [6] 梟 (早) 毒 (前) 句 (後) [7] 之以言, 思 [8] (使) 羣臣 旻 (得) 執 [9] 女 (焉)。{ 虜 (吾) } [10] 【9】臣、四 隣 (鄰) 以 虜 (吾) 先君爲能敘 [11]。女 (如) 弗果善, 歿 (訾) [12] 虜 (吾) 先君而孤 [13] 乳 = (孺子), 元 (其) 臯亦 歿 (資) [14] 婁 (數) [15] 也。邦人既 葦 (盡) 駟 (聞) 之, 乳 = (孺子) 【10】或 [16] 延 (誕) 告 [17]。虜 (吾) 先君女 (如) 忍 [18] 乳 = (孺子) 志 = (之志), 亦猷 (猶) [19] 歿 (資)。虜 (吾) 先君 朮 (必) 擗 (將) 相 [20] 乳 = (孺子), 以定奠 (鄭) 邦之社稷 (稷)。”

孺子如恭大夫, 且以教焉。如及三歲, 幸果善之, 孺子其重得良臣, 使禦寇也, 數圖於君。昔吾先君使二三臣, 抑早前後之以言, 使羣臣得執焉。{吾}臣、四鄰以吾先君爲能敘。如弗果善, 訾吾先君而孤孺子, 其臯亦資數也。邦人既盡聞之, 孺子或誕告。吾先君如忍孺子之志, 亦猶資。吾先君必將相孺子, 以定鄭邦之社稷。

【주석2】

[1] 鄒可晶(網名“紫竹道人”)(2016)은 ‘教’를 ‘學’의 통가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³⁴⁾ 教는 가르치고 훈계하다(教訓), 가르쳐 이끌다(教導)의 뜻이다.

[2] 果는 과연(果眞)의 뜻이다. <禮記·中庸>에 “과연 이런 도에 능해질 수 있다면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현명해지며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라고 했다.

[3] 重은 재차(再次), 다시금(重新)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重은 다시(再)의 뜻”이라고 했다. <廣韻·用韻>에 “重은 다시 하다(更爲)의 뜻”이라고

34)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帖38樓

했다. 여러 大夫들은 본시 武公의 어진 신하들로써 군왕을 받들어 모시는데 충심을 다할 사람들이며, 莊公에게 있어서는 어진 신하들을 다시금 얻었다고 할 수 있다.

[4]整理者(2016): 戡는 품을 성부로 하며, '禦'의 통가인데, 모두 疑성 모 魚운부의 글자이다. 《國語·魯語上》에 “그리하여 혼란을 막는다(所以禦亂也)”라고 했다.

[5]專은 '敷'의 통가로, 군왕에게 말씀을 올리다의 뜻이다. 《書·舜典》에 “말씀으로 아뢰어 올리게 하며 그런 후에 그들의 공적을 살피시어 수레와 의복으로 공을 표창하셨다.(敷奏以言, 明試以功, 車服以庸)”고 했다. (僞孔傳에 “敷는 퍼다(陳)의 뜻이고, 奏는 나아가다(進)의 뜻”이라고 했다.) 上博六《景公瘡》第四簡에 “博情而不偷(과장됨 없이 진실된 사실만을 진언하다)”라고 했고, 上博四《昭王毀室》第四簡에 “僕將揆亡老, 以僕之不得并僕之父母之骨, 私自博(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매장하려 하는데, (어머니의 무덤 위에 궁궐이 지어져서 부모님을 합장하려면 궁궐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합장할 수 없어서 내가 사사로이 진언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博'은 '敷'의 통가로 '진언하다(陳)'의 뜻이다.³⁵⁾ 이곳의 '專'도 동일한 용법이다. 敷圖는 계략이나 책략을 진상하다의 뜻이다.

[6]整理者(2016): 抑은 '則'으로 풀이되는데, 《古書虛字集釋》(p.703)에 보인다.

[7]鄒可晶(網名“紫竹道人”)(2016): '前後'는 '先後'와 같다. 《詩·大雅·緜》에 “앞사람이 뒷사람을 끌어준다네(予曰有先後)”라고 했는데, 毛傳에 “길에서 서로 앞서고 뒤서는 것을 선후라고 한다(相道前後曰先後)”고 했다.³⁶⁾

[8]網友bulang(2016): 여기서 '思'는 '使'의 통가로 보는 것이 비교적 타당해 보인다.³⁷⁾

[9]執은 가지다(持), 지키다(持守)의 뜻이다. 《廣雅·緝韻》에 “執은 지키

35) 張崇禮, 《釋〈景公瘡〉中的“敷情不偷”》, 簡帛研究網, 2007.07.30

36)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帖38樓

37)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帖16樓

다(守)의 뜻'이라고 했다. 《禮記·中庸》에 “誠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善을 선택하여 굳게 잡아 지키는 자이다.(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라고 했다.

[10]王寧(2016): 이는 ‘폼’자의 파손된 글자(殘泐)이다. ‘폼臣’이라는 어휘는 古書에 자주 보이는데, ‘나의 신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鄭武夫人이 말한 ‘폼臣’은 우리 정나라의 여러 대신을 뜻한다.³⁸⁾

[11]整理者(2016): 敘는 《周禮·司書》에 “그 재물을 기록하고 정리하다(以敘其財)”라고 했는데, 鄭注에 “가지런히 정리하다(比次)와 같다”고 했다.

[12]歛의 ‘欠’은 ‘次’의 생략형으로, 從死次聲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추정된다. 《字彙補·歹部》에 “歛은 歺 과 같다”고 했다. ‘歺’은 ‘贅’의 통가이다. 次는 淸성모 脂운부이고, 此는 淸성모 支운부이며, 두 글자는 음이 비슷하여 통용될 수 있다.³⁹⁾贅는 윗사람의 은혜를 보답하여 갚으려 하지 않다.(不思報稱其上之恩)의 뜻이다. 《說文》에 “贅는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해 하다(不思稱意)의 뜻이다. 글자는 從言此聲으로 이루어졌다. 《詩》에 ‘입을 맞춰 서로 비방하고(翁翁訛訛)’라고 했다”고 했다. 段注에 “<釋訓>에 ‘翁翁訛訛는 말은 바 직분을 다하지 않다(翁翁訛訛, 莫供職也)는 뜻’이라고 했는데, 毛傳에서는 ‘윗사람을 닮하고 비방하면서 윗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翁翁然患其上, 訛訛然不思稱其上)는 뜻’이라고 했다. ‘不思稱其上者’라는 것은 그 윗사람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음을 말한다(謂不思報稱其上之恩也) <大雅>傳에 ‘訛訛는 비뚤어져서 섬기지 않는다(窳不供事也)의 뜻’이라고 했다. 두 傳의 의미가 같다.”고 했다.

[13]孤는 저버리다, 등지다(辜負)의 뜻이다. 《史記·游俠列傳》에 “지금 학문에 구속되거나 작은 의리를 가슴에 품은 채 오랫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논조를 비루하게 하고 세속에 동조하여 시류를 따라 부침하면서 명예를 취하는 것과 같겠는가.(今拘學或拘咫尺之義, 久孤於世, 豈若卑論儕俗, 與世沉浮而取榮名哉!)”라고 했는데, 司馬貞 索隱에 “학문에 구속된 선비가 작은 일(뜻)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자신의 뜻을 저버리는 것(言拘學守義

38) 王寧, 《淸華簡六<鄭武夫人規孺子>寬式文本校讀》

39) 張儒·劉毓慶, 《漢字通用聲素研究》, 山西古籍出版社, 2002, p.512 【此通次】條

之士，或抱咫尺纖微之事，遂久以當代，孤負我志)을 말한다”고 했다. 《後漢書·明德馬皇后紀》에 “臣의 叔父 援은 은혜를 저버리고 갚지 못하고(臣叔父援孤恩不報)”라고 했는데, 李賢 注에 “孤는 등지다(負)의 뜻”이라고 했으며, 朱駿聲 《說文通訓定聲》에 “은혜를 배반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14] 趺 은 ‘資’의 통가이며, 기대어(憑藉), 의지하여(依靠)의 뜻이다. 《篇海類編·珍寶類·貝部》에 “資는 기대어(憑)의 뜻”이라고 했다. 《孟子·離婁下》에 “의지하는 것이 깊어진다(則資之深)”라고 했는데, 朱熹 集註에 “資는 의지하여(藉)의 뜻”이라고 했다.

[15] 整理者(2016): 數는 《左傳》昭公2년에 “담당 관리를 시켜 낱낱이 밝혔다.(使吏數之)”라고 했는데, 杜注에 “그 죄를 따져 밝히다(責數其罪)의 뜻”이라고 했다.

[16] 單育辰(網名ee)(2016): “孺子 【10】 或(又)延告의 ‘或은 ‘又’의 통가임이 틀림없다.”⁴⁰⁾

[17] 誕告는 널리 알리다(廣泛告知)의 뜻이다. 《書·湯誥》에 “왕이 하나라를 이기고 돌아와 박읍에 이르러 만방에 크게 고하였다(王歸自克夏, 至於亳, 誕告萬方)”고 했는데, 孔傳에 “誕은 크다(大)의 뜻이다. 천명의 큰 뜻을 만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다는 의미”라고 했다. 簡文에서는 大夫들의 죄상을 鄭나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다의 뜻이다.

[18] 忍은 인내하다(忍耐), 용인하다(容忍)의 뜻이다. 《說文·心部》에 “忍은 견디다(能)의 뜻”이라고 했다. 王筠 句讀에 “能은 耐의 통가”라고 했다. 《廣雅·釋言》에 “忍은 견디다(耐)의 뜻”이라고 했다. 《玉篇·心部》에 “忍은 참고 견디다(含忍)의 뜻”이라고 했다. 《書·湯誥》에 “온 백성들이 그의 흉악한 해침을 입어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爾萬方百姓, 罹其凶害, 弗忍荼毒)”라고 했으며, 《論語·八佾》에 “이런 일을 용인한다면 어떤 일인들 용인하지 못하겠는가?(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고 했다.

[19] 猶는 ~할 수 있다(可)의 뜻이다. 《玉篇·犬部》에 “猶는 ~할 수 있다

40)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 帖14樓

(可)의 뜻"이라고 했다. 《詩·魏風·陟岵》에 “행여 몸조심 할지어다 부디 몸 성히 돌아올 수 있어야지(上慎旃哉 猶來無止)”라고 했는데, 毛傳에 “猶는 ~할 수 있다(可)의 뜻"이라고 했다.

[20]相은 돕다(佑助)의 뜻이다. 《書·盤庚下》에 “내가 힘써 가려서 그대 들을 도움은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 공경하기 때문이니라(予其懋簡相爾, 念敬我衆)”라고 했는데, 孔傳에 “相은 돕다(助)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2】

孺子 너는 대부들을 공경하면서 또 그들을 잘 가르쳐 인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만약 3년이 지나도록 다행히도 여전히 그들이 어질다면, 孺子 너는 어진 신하를 다시금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적을 막게 하고, 군주인 너에게 계책을 헌상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종전에 先君께서 신하를 부리실 때 먼저 말로써 그들을 가르치시어 群臣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준칙을 얻게 하셨다. 신하와 백성, 그리고 사방 이웃나라가 모두 先君께서 능히 합리적으로 일의 순서를 가지런히 하셨다고 생각했다. 대부들이 만약 선하지 못하다면 先君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孺子를 저버리는 것이 되니 이를 근거로 그들의 죄를 따져 밝혀야 할 것이다. 도읍의 사람들이 대부들의 죄를 다 알고 있을 테니 孺子 너는 다시 나라 전체에 널리 알리면 될 것이다. 先君이 만약 孺子 너의 생각을 용인한다면 그도 하늘에서 너를 도울 것이다. 先君께서는 분명히 너를 도우셔서 鄭나라의 社稷을 안정시키실 것이다.

【간문3】

乳 = (孺子) 拜, 乃 膺 (皆)臨[1]. 自是 【11】 昏 (期) [2] 以至 既 (葬) 日, 乳 = (孺子) 母 (母) 敢又 (有) 智 (知) 女 (焉), 誼 (屬) 之 夫 = (大夫) 及百執事. 人 膺 (皆) 思 (懼), 各共 (恭) 元 (其) 事.

孺子拜，乃皆臨。自是期以至葬日，孺子毋敢有知焉，屬之大夫及百執事。人皆懼，各恭其事。

【주석3】

[1]整理者(2016): 臨은 곡하여 哭弔하나다 뜻이다. 《左傳》宣公12년에 “그래서 태궁에 모여 곡하는 것에 대해 점을 치고(卜臨于大宮)”라고 했는데, 杜注에 “곡하다(哭)의 뜻”이라고 했다. 《儀禮·士虞禮》에 “宗인이 주인에게 고하기를 ‘有司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 마침내 주인에게 朝夕哭 때처럼 賓이 있는 방향마다 세 번씩 절하라고 청한다. 주인이 賓에게 절을 하고 廟門으로 들어가 곡을 한다. 이때 부인들도 곡을 한다(宗人告有司具，遂請拜賓如臨。入門哭，婦人哭.)”라고 했는데, 鄭注에 “臨은 朝夕哭의 뜻”이라고 했다.

[2]期는 《廣雅·釋言》에 “期는 이때(時)의 뜻”이라고 했다. ‘自是期以至葬日’은 이때부터 매장하는 날까지를 뜻한다.

【번역3】

孺자가 武夫人에게 감사의 절을 했다. 그리고 武夫人과 함께 臨을 행했다. 이때부터 매장하는 날까지 莊公(孺子)은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大夫와 百官들에게 이를 맡겼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근신하는 자세로 각자 직분을 다했다.

【간문4】

鼻(邊) 父規夫 = (大夫) 曰：“君共(拱) [1]而【12】不言，加 甓(重) [2]於夫 = (大夫)，女(汝) 斲(慎) 甓(重) 君 甓(葬)，而舊(久) [3]之於上。”

邊父規大夫曰：“君拱而不言，加重於大夫，汝慎重君葬，而久之於上。”

【주석4】

[1]整理者(2016)는 拱은 ‘拱’의 통가이며, 拱默(두 손을 모으고 침묵하고 있다)은 고대의 관용어(古習語)로 《漢書·鮑宣傳》와 《潛夫論·賢難》에는 ‘拱默’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拱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漢書·英布傳》에 “오늘날 萬人の 무리를 어루만지니 한 사람도 淮水를 건너는 자가 없었으며 꼼짝 않고 누가 이길지를 관망하고 있었다(今撫萬人之衆, 無一人渡淮者, 陰拱以觀其孰勝)”고 했는데, 顏師古 注에 “손을 거두고 있는 것을拱이라고 한다.……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관망하는 것(斂手曰拱……言不動搖, 坐觀成敗也)을 말한다”고 했다. 簡文에서는 莊公이 政事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重은 권력, 권세를 뜻한다. 《荀子·臣道》에 “군주의 명령에 항명할 수 있다는 것은 군주의 권력을 빌리고, 군주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하며, 군주의 치욕을 없애고, 공과 벌로 나라의 큰 이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일러 拂이라 한다.(有能抗君之命, 竊君之重, 反君之事, 以安國之危, 除君之辱, 功伐足以成國之大利, 謂之拂)”고 했다.

[3]久는 기다리다(等待)의 뜻이다. 《銀雀山漢墓竹簡(貳)·論政論兵之類·五名五恭》에 “軒驕를 탄 병사들이 공손하게 그를 기다리니(軒驕之兵, 則共(恭) 敬而久之)”라고 했다.⁴¹⁾

【번역4】

邊父가 대부들에게 권고하여 이르기를, “君主께서 政事를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권력을 대부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대들은 先君의 葬禮를 신중하게 받들어야 하며 그런 후에 君主가 태도를 표명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www.kci.go.kr

41) 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編, 《銀雀山漢墓竹簡》(貳), 文物出版社, 2010, p.153

【간문5】

三月，少(小) 羨(祥) [1]，夫= (大夫) 聚 謀 (謀)，乃 使 (使) 鼻(邊) 父於君曰：“二三老 【13】 母(母) 交[2]於死[3]，今君定，拱(拱) 而不言，二三臣 史 (事) 於邦， 遠 = 女 = (惶惶焉[4]，焉) 宵(肖) [5]昔(錯) [6]器於巽[7] 贊 (藏) [8]之中，母(母) 乍(措) [9]手止[10]， 台(殆) [12]於 【14】爲[13]敗[14]，[11] 者(胡) [15]盜(寧) [16]君？是又(有) 臣而爲執(褻) [17]辟[18]，幾(冀) [19]既臣之獲臯，或辱 虐 (吾) 先君，曰[20]：‘是元(其) 儻(蓋) 臣[21]也！’”

三月，小祥，大夫聚謀，乃使邊父於君曰：“二三老母交於死，今君定，拱而不言，二三臣事於邦，惶惶焉，焉肖錯器於巽藏之中，母措手止，殆於爲敗，胡寧君？是有臣而爲褻辟，冀既臣之獲臯，或辱吾先君，曰：‘是其蓋臣也！’”

【주석5】

[1]整理者(2016)：小祥은 제사명(祭名)이다. 《儀禮·士虞禮》에 “만 일 년이 되어 小祥이다(期而小祥)”라고 했는데, 鄭注에 “小祥은 제사명이고, 祥은 길하다의 뜻이며, 期는 일주년의 뜻”이라고 했다.

[2]交는 접하다(交接), 접촉하다(接觸)의 뜻이다. 《易·泰》에 “天地가 만나 萬物이 통한다(天地交而萬物通也)”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천지의 기가 만나 萬物을 낳고 기른다(由天地氣交而生養萬物)”고 했다. 《荀子·儒效》에 “상하의 접촉이 서로 어지럽지 않다(是言上下之交不相亂也)”고 했는데, 楊倞 注에 “交는 上下가 서로 접촉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3]死는 사형(死刑), 죽을 죄(死罪)를 뜻한다. 《易·中孚》에 “군자가 獄을 논하여 사형을 누그러트리다(君子以議獄緩死)”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를 누그러트리다(緩捨當死之刑也)의 뜻”이라고 했다. ‘母交於

死'는 죽을죄를 짓지 않았고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4]整理者(2016): '惶惶焉'은 곧 惶惶然이며, 불안해서 떠는 모양이다.

[5]肖는 '肖'의 통가이며, 비슷하다(相似), 유사하다(類似)의 뜻이다. '肖'와 '肖'는 자주 통용된다. 《戰國策·趙策四》에 "신에게 아들 서기가 있는데 아직 어리고 不肖합니다(老臣賤息舒棋最少不肖)"라고 했는데, 漢帛書本에 '肖'를 '肖'로 썼다. 《戰國策·魏策二》에 '周肖'를 《魏策四》에서는 '周肖'라고 했다. 《書·說命上》에 "이에 그의 형상을 더듬어 그의 모습을 그려 가지고 온 천하에서 두루 그를 찾게 하셨다. 說이 부암 땅의 들에서 흙을 다지고 있었는데 모습이 비슷하였다.(乃審厥象, 俾以形旁求於天下, 說築傅巖之野, 惟肖)"라고 했는데, 孔傳에 "肖는 비슷하다(似)의 뜻"이라고 했다.

[6]昔은 '錯'의 통가이며, 섞여있다(間雜), 혼합되어 있다(混雜)의 뜻이다. 《廣雅·釋詁四》에 "錯은 섞이다(廁)의 뜻"이라고 했다. 《集韻·鐸韻》에 "錯은 혼합되다(雜)의 뜻"이라고 했다. 《書·禹貢》에 "이곳의 賦稅는 上上급에 속하나 上中급도 섞여있으며, 이곳의 밭은 中中급에 속했다(厥賦惟上上錯, 厥田惟中中)"고 했는데, 孔傳에 "上上是 第一의 뜻이고, 錯은 혼합되다(雜)의 뜻으로, 두 번째 부세가 섞여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7]巽은 楚나라 화폐명(貨貝名)이다. 古籍에서는 選, 饌, 撰, 緩 등으로도 썼다.

[8]藏은 물건을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玉篇·艸部》에 "藏은 창고(庫藏)의 뜻"이라고 했다. '焉肖錯器於巽藏之中'은 마치 보통의 일반 기물이 돈이 있는 금고에 함께 섞여있는 것처럼의 뜻으로, 여기서는 大夫의 신분으로 君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9]整理者(2016): 乍는 '措'의 통가이다.

[10]整理者(2016): 止는 《儀禮·士昏禮》에 "모두 베개를 두고, 발은 북쪽을 향한다(皆有枕, 北止)"라고 했는데, 鄭注에 "발(足)의 뜻"이라고 했다. 《論語·子路》에 "백성들은 손발을 둘 곳이 없다(則民無所措手足)"고 했다.

[11]單育辰(網名ee)(2016): 《鄭武夫人規孺子》의 14簡과 15簡은 그대로

직접 연결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殆於爲敗”는 의미가 잘 통하며, 14簡과 15簡 중간에 죽간이 누락되었다고 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12]殆는 두려워하다(畏懼)의 뜻이다. 《淮南子·說林訓》에 “달은 능히 천하를 밝히지만 蟾蜍에 먹히고, 騰蛇는 능히 雲霧를 올라타고 노닐지만 螻蛆를 두려워한다.(月照天下, 蝕於詹諸; 騰蛇遊霧, 而殆於螻蛆)”라고 했는데, 高誘注에 “殆는 두렵다(畏)와 같다”고 했다.

[13]爲는 있다(有)의 뜻이다. 《易·夫》에 “강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가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된다(壯於前趾, 往不勝, 爲咎)”라고 했는데, 俞樾 《群經平議·周易一》에 “爲咎는 有咎와 같다.……爲는 有로 풀이된다. 有咎를 爲咎라고 말한다. 또 有間을 爲間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爲咎, 猶有咎也……爲可訓有, 有咎而曰爲咎, 亦猶有間而曰爲間也)”고 했다. 《孟子·滕文公上》에 “원래 등나라는 토지가 협소하지만 다스리는 군자가 있어야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야인도 있어야 합니다(夫滕, 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라고 했는데, 趙岐注에 “爲는 있다(有)의 뜻”이라고 했다.

[14]敗는 재앙(禍災), 화(禍亂)의 뜻이다. 《書·微子》에 “상나라는 이제 재난이 있을 것이니 저는 그냥 멸망을 받아들이겠습니다.(商今有災, 我興受其敗)”라고 했다. 桓寬《鹽鐵論·誅秦》에 “지금 匈奴가 침략해와 잠식해 들어오니 멀리까지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며 변경에서는 화를 입고 있다(今匈奴蠶食內侵, 遠者不離其苦, 獨邊境蒙其敗)”고 했다.

[15]胡는 대명사로 반문(反問), 어찌(怎麼), 어떻게(怎樣)를 나타낸다. 《詩·邶風·日月》에 “어찌하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네요(胡能有定? 寧不我顧!)”라고 했다. 《國語·周語上》에 “무릇 백성들이란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마련인데, 실행해서 이루어야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夫民慮之於心而宣之於口, 成而行之, 胡可壅也!)”라고 했다.

[16]寧은 편안하게 하다, 안정시키다의 뜻이다.

[17]褻은 더럽다(汚穢)의 뜻이다. 《資治通鑒·漢紀四》에 “언사가 지극히

추잡하고 거만하였다(辭極褻嫚)”고 했는데, 胡三省 注에 “褻은 더럽다(汚)의 뜻”이라고 했다.

[18]辟은 사악하고 편벽되다(邪僻)의 뜻이다. 《詩·大雅·蕩》에 “포악한 상제는 그 명에 사악하고 치우침이 많도다(疾威上帝, 其命多辟)”라고 했는데, 鄭玄 箋에 “疾은 병자다”라고 한 것은 賦斂이 무거운 것을 말하며, ‘威는 죄인이다’라고 한 것은 刑法이 엄한 것을 말한다. 그 政敎가 사악하고 치우침이 많으며, 옛 典章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辟은 독음이 匹亦反으로 본래 또 僻으로도 쓴다.”고 했다. 《管子·乘馬》에 “백성의 본성은 편벽함으로 이끌면 어리석어지고 바른 도리로 이끌면 선하게 된다(民之生也, 辟則愚, 閉則類)”고 했다. 爲褻辟는 비열하고 사악한 일을 하다는 뜻인데, 簡文에서는 莊公(君主)에게 참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9]幾는 ‘冀’의 통가로, 희망하다, 바라다의 뜻이다.

[20]整理者(2016): 曰을 ‘謂(말하다)’로 풀이했다. 《古書虛字集釋》(134p.)에 나온다.

[21]整理者(2016): 《詩·文王》의 毛傳에서 ‘蠹臣’의 ‘蠹’을 ‘進’으로 풀이했다. 《說文通訓定聲》에 “蠹은 進으로 통가되었으며, 충성을 바치다(進獻忠誠)의 뜻”이라고 했는데, 簡文에서는 여러 신하(諸臣)들이 본래 先君이 선발한 사람들(先君進任之人)임을 의미한다.

【번역5】

三月이 되어 武公의 小祥을 치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부들이 모여 의논해 邊父를 보내 군주께 아뢰기를 “대신들은 큰 과오를 범하지 않았고, 이제 군주께 서는 안정되었는데도 친히 정사를 양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신하들이 국사를 처리하는데 두렵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일반 기물을 돈을 둔 금고에 함께 넣어둔 것처럼 손발을 둘 곳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을까 전전공공하며 두려워하는데 어찌 군주를 안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 보니) 참언하는 자가 있어 한편으로는

신하들이 처벌받기를 바라며 또 “이들이 모두 先君이 선발한 신하들이다!”라고 하여 先君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문6】

君 倉 (答) 鼻 (邊) 【15】 父曰：“二三夫= (大夫) 不尙 (當) [1], 母 (毋) 然[2]。二三夫= (大夫) 虜 (皆) 虜 (吾) 先君 齋 = (之所) 付[3]孫[4]也。 虜 (吾) 先君智 (知) 二三子之不 忒 = (二心), 甬 (用) 屢 (歷) [5]受 (授) 之 【16】 邦。不是[6] (啻) 然, 或稱 (稱) [7] 起 (起) 虜 (吾) 先君於大難之中。今二三夫= (大夫) 畜[8]孤而乍 (作) [9] 女 (焉), 幾 (冀) [10]孤其[11] 跽 (資) [12]爲免 (勉) [13], 躬 (抑) [14]亡 (無) 女 (如) 【17】 虜 (吾) 先君之 息 (憂) 可 (何) ?

君答邊父曰：“二三大夫不當，毋然。二三大夫皆吾先君之所付孫也。吾先君知二三子之不二心，用歷授之邦。不啻然，或稱起吾先君於大難之中。今二三大夫憐孤而作焉，冀孤其資爲勉，抑無如吾先君之憂何？”

【주석6】

- [1]當은 합당하다(恰當), 적당하다(適當)의 뜻이다. 不當은 틀리다와 같다.
- [2]毋然是 이런 것이 아니다의 뜻이다.
- [3]黃傑(網名“暮四郎”)(2016): ‘付’는 本字로 이해하면 된다. 즉 맡기다(托付)의 뜻이다.
- [4]整理者(2016): 孫은 《禮記·表記》에 “후손에게 계책을 남겨주시어(詒厥孫謀)”라고 했는데, 孔疏에 “子孫을 이른다.”고 했다.
- [5]整理者(2016): 歷은 《書·盤庚下》에 “그대 백성들에게 내 뜻을 다 고하여(歷告爾百姓于朕志)”라고 했는데, 蔡沈集傳에 “다하다(盡)의 뜻”이라고 했

다.

[6]黃傑(網名“暮四郎”)(2016): ‘是’는 ‘審’의 통가이며, 上古의 ‘是’聲자와, ‘帝’聲字는 자주 통용되었다. ‘不是(審)然’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의 뜻이다.⁴²⁾

[7]稱은 들다(舉起)의 뜻이다. 《書·牧誓》에 “그대들의 창을 들고, 그대들의 방패를 나란히 하며, 그대들의 긴 창을 세우고, 내 훈시를 하리라(稱爾戈, 比爾幹, 立爾矛, 予其誓)”라고 했는데, 孔傳에 “稱은 들다(舉)의 뜻”이라고 했다. 《詩·邶風·七月》에 “공당에 올라 앉아 물소 뿔잔을 들어 술을 권한다네. 부디 만수무강 하소서(躋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라고 했다.

[8]奮은 ‘奮’의 통가로, 부축하다(扶持)의 뜻이다. 《說文·心部》에 “奮은 일으키다(起)의 뜻이다. 글자는 從心奮聲로 이루어졌다. 《詩》에 ‘나를 일으키지 않네(能不我奮)’라고 했다”고 했다. 桂馥 義證에 “起는 《晉語》에 ‘世相起也(서로 부축하여 일으키다)’의 ‘起’와 같다. 韋注에 ‘起는 부축하여 일으키다(扶持)의 뜻’이라고 했다”고 했다.

[9]作은 《說文·人部》에 “作은 일어나다(起)의 뜻”이라고 했다.

[10]單育辰(網名ee)(2016): ‘幾’는 ‘冀’의 통가이며, ‘冀’는 희망하다(希望)의 뜻이다. ‘幾’와 ‘冀’가 서로 통하는 예는 많은데, 《古字通假會典》(p.375)에 보인다.

[11]其는 희망을 나타낸다.

[12]資는 빙자하여(憑藉), 의거하여(依靠)의 뜻이다. ‘資’는 뒤에 목적어 ‘二三大夫’가 생략되었다.

[13]免은 ‘勉’의 통가로, 힘쓰다(勉力), 노력하다(努力)의 뜻이다. 《荀子·王制》에 “관리들은 최선을 다하게끔 하고 백성들은 흠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재상의 직무이다.(使百吏免盡, 而衆庶不偷, 塚宰之事也)”라고 했는데, 王念孫《讀書雜誌·荀子補遺》에 “免盡은 모두 힘쓰다(盡免)이다. 免과 勉은 같다. 盡勉은 모두 힘쓰다의 뜻이다. 勉과 偷는 상대되는 말이다.”라고 했다.

[14]抑은 즉(則)의 뜻이다. 無如……何?는 대처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42)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帖19樓

《禮記·哀公問》에 “과인은 이미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뒷날에 사물의 도리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일이 있게 되면 어찌 합니까(寡人既聞此言也, 無如後罪何!)”라고 했다.

‘吾先君之憂’는 簡文에서 武公의 喪事를 가리킨다. 《書·說命上》에 “왕이 부모의 喪을 지키며 3년을 움막에서 지내셨다(王宅憂, 亮陰三祀)”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왕이 부모의 상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번역6】

군주가 邊父에게 대답하기를 “대부들이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대부들은 모두 先君께서 子孫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先君께서는 여러 대부들이 모두 한마음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鄭나라를 당신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대부들께서는 大難 시기에 先君을 도왔습니다. 이제 여러 대부들께서 나를 도우니 내가 이에 기대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先君의 喪을 지키는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鄭武夫人規孺子>의 내용과 출토 의미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주해했다. <鄭武夫人規孺子>는 비록 周代에 작은 제후국의 하나였던 鄭나라 초기 궁중에서 선왕의 사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 《史記·鄭世家》의 武公, 莊公편 및 《左傳·鄭伯克段于鄆》기록과 연계되는 점을 제외하면 그다지 국내 학계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周의 東遷시 평왕을 수행했던 주요 제후 중의 한 사람인 鄭武公이 대란에 처해 역시 평왕을 수행했던 제후국인 衛나라에 3년간 머물렀다는 기록을 담고 있어 정나라의 초기 역사는 물론 주의 동천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 이해에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상례 용어와 이와 연관되는 내용들이 나와 선진시기 상례의 실재를 보여주며 후대 예서와 비교 및 서로 간에 고증해 볼 수 있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본고에서 주해하고 고찰한 <鄭武夫人規孺子>의 내용에 대해 先秦시기 중국의 역사를 연구하거나 고대의 상례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이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 中西書局, 2016.
- 高亨, 《古字通假會典》, 齊魯書社, 1989.
- 何有祖, <讀清華六短札(三則)>, 簡帛網, 2016.04.19.
- 蔣偉男, <簡牘“毀”字補說>, 簡帛網, 2016.04.23.
- 簡帛網, 簡帛論壇·簡帛研讀, <清華六<鄭武夫人規孺子>初讀>帖
— 7樓, 14樓, 0樓, 28樓, 38樓, 16樓, 19樓.
- 李守奎, <<鄭武夫人規孺子>中的喪禮用語與相關的禮制問題>, 《中國史研究》, 2016: 1期.
- 李守奎, <釋楚簡中的“規”——兼說“支”亦“規”之表意初文>, 復旦學報(社會科學版), 2016: 3期.
-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中西書局, 2011.
- 李學勤, <有關春秋史事的清華簡五種綜述>, 《文物》, 2016: 3期.
- 龐壯城, <<清華簡(陸)>考釋零箋>, 簡帛網, 2016.04.27.
-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下簡稱《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與保護中心, 2016.04.16.
- 王紅亮, <清華簡(六)<鄭武公夫人規孺子>有關歷史問題解說>,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4.17.
- 王寧, <清華簡六<鄭武夫人規孺子>寬式文本校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5.01.
- 尉侯凱, <清華簡六<鄭武夫人規孺子>編連獻疑>, 簡帛網, 2016.06.
- 銀雀山漢墓竹簡整理小組編, 《銀雀山漢墓竹簡》(貳), 文物出版社, 2010.

- 張崇禮, <釋〈景公瘞〉中的“敷情不偷”>, 簡帛研究網, 2007.07.30.
- 張儒, 劉毓慶, 《漢字通用聲素研究》, 山西古籍出版社, 2002.
- 공병석, 《예기 상례의 인문관》, 학고방, 2013.
- 김병준, <청화간<계년>의 비판적 검토-秦의 기원과 관련하여>, 《인문논총》 제73권 3호, 2016.08.
- 김원중 역, 《사기세가》, 민음사, 2010.
- 김학주 역, 《書經》, 명문당, 2012.
- 문병순, <《清華大學藏戰國竹書(參)良臣》篇譯註>, 《중국어문논총》 58, 2013.
- 심재훈, <전래문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청화간<계년>의 주앙실 동천>, 《역사학보》 제221집, 2014.
- 이상아 외 역, 《국역 의례 - 喪禮篇》,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5.
- 이상옥 역, 《禮記》 상, 중, 하, 명문당, 1985.
- 이연주·張崇禮(2015b), <清華簡〈周公之琴舞〉주해>, 《중국학논총》 49집, 2015.08.
- 이종오, 《喪禮精解》, 북스힐, 2014.
- 장세후 역, 《춘추좌전》, 을유문화사, 2012.
- 정병섭 역, 《禮記集說大全. 喪大記》, 학고방, 2015.
- 지재희·이준영 역, 《周禮》, 자유문고, 2002.

< Abstract >

“Zhengwufuren Gui Ruzi”(〈鄭武夫人規孺子〉) is one of the five old documents contained in the 6th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Zhengwufuren Gui Ruzi”(〈鄭武夫人規孺子〉) depicts a story happening at the Royal Court of Zheng(鄭) after the passing of Wugong(武公). It contains the advice and caution(規誡) of Wufuren(武夫人) to her young son Zhuangong(莊公), successor of Wugong(武公), intending to prevent him from ruling the nation and describes the subsequent developments. This bamboo slip document reveals an unknown fact that Wugong(武公) resided in Wei(衛) for 3 years after he succeeded to the crown, which could possibly be

related to the political disturbance at the time of the fall of West Zhou(西周) and the transfer of capital to the east(東遷). It also contains several terms related to the mourning rites, thus allowing us to know the actuals of the mourning of the Pre-Qin period and compare them with relevant clauses in the ancient books on ceremonies and rites, including the Yili(儀禮) and Liji(禮記).

Key words: Zhengwufuren Gui Ruzi(鄭武夫人規孺子), Zheng(鄭), Zhengwufureni(鄭武夫人), Zheng Wugong(鄭武公), Zheng Zhuanggong(鄭莊公), mourning decorum(喪禮),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1. 31.	2017. 02. 27.	2017. 02. 28.	2017. 03. 11.	2017. 03. 31.